

# PCS와 대재해채권 (CAT-bond)

Joe Louwagie  
PCS 상무



## 1. PCS의 역사

PCS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서비스로서, 전미 화재보험 언더라이터 위원회(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에서 결성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지역별로 다르므로 재난이 빈번한 지역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PCS는 이를 위해 손실 데이터를 취합하여 보험사의 요율 결정을 돕는 역할로부터 출발하였다.

재난 발생 이후에 실시간으로 손실을 조사하여 집계하는 방식은 9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이 방식은 각각의 대재해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이 불어나는 모습을 명확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ILS(보험연계증권, Insurance Linked Securities)업계로 진출한 것은 1997년 시카고 상공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로 PCS는 대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집계하여 지역별 손실 지수(Loss Index)를 발행하게 되었다. PCS는 보험사로부터 지역별 실제 피해현황을 통보받아 지수를 생성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재보험사와 브로커사에서 PCS의 손실 지수를 ILS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 2. PCS서비스의 활용성

PCS는 보험업계 전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업계에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의 마케팅부서에서는 PCS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대재해 발생여부를 결정짓고 보험영업 대리점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한다. 정부기관에서는 대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PCS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협회 및 보험유관기관에서는 각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PCS를 이용한다. CAT모델 회사에서는 자체 개발한 재해 모델을 검증하고 보정하기 위해 PCS를 이용한다.

PCS의 손실지수는 재보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보험사는 물론 재보험 브로커사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PCS는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ILS의 발행이다.

## 3. 보험사의 이익

보험사의 활용성에 대해 상술하면 크게 4분야이다.

### 가. 손해사정부서

손해사정부서에서는 PCS에서 집계된 손실의 예비평가액을 손해사정업무의 지표로 활용한다. 업

계평균 지급액과 외부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지급액, 자사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손해사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나. 계리부서

계리부서에서는 PCS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손실준비금은 자사의 클레임 현황과 업계 클레임 현황을 보고 준비한다. 요율을 조정할 때도 PCS데이터를 사용한다. PCS데이터는 요율산출을 위한 모델을 조정할 때도 사용된다.

#### 다. 언더라이팅부서

언더라이팅부서에서는 대재해에 노출된 물건들의 분포를 살펴보고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PCS데이터를 사용한다. PCS데이터로 자사 물건의 대재해 노출 정도를 유추할 수도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도 한다.

#### 라. 리스크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에서는 대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예상손해(PML)를 측정하기 위해 PCS데이터를 사용한다. CAT리스크 관리부서는 ILS와 관련되어 PCS데이터를 사용한다. 경영리스크관리부서는 내부적인 리스크 분석을 위해 PCS데이터를 사용한다.

## 4. 업무 프로세스

PCS의 기본적 업무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손실을 정확히 집계하는 회귀적 클레임 집계(Retrospective Claim Review)이다.

#### 가. 사고 인지

PCS팀은 항상 기상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는 예의주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사하여 대재해로 판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 나. 능동적 조사

대재해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재해가 발생하면, 회원사에 바로 접촉하여 손실규모를 취합한다. 목표는 24시간 내에 재해를 “CAT”(대재해)로 지정하는 것이다.

#### 다. CAT 지정

조사된 보험손해액의 예상치가 250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PCS는 CAT S/N(일련번호)를 부여하



고 업계 공통으로 대재해로 사용되도록 한다. 이후로 CAT S/N이 붙은 모든 클레임은 대재해로 발생한 클레임으로 취급된다. 손해사정 시 클레임의 처리에 있어서 CAT S/N의 역할은 매우 크다.

#### 라. 손실 집계

재해 발생후 2주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보험사의 손실을 집계하여 주별/날짜별/위험별 예비 손실 평가금액을 공표한다. 이후로 매 60일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금액을 공표하게 되며, 이 과정은 더 이상 변화가 없어서 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계속된다. 조사가 종결되면 마지막 평가금액이 업계 손실금액으로 확정된다.

### 5. 한국 내 캐본드 도입 가능성

PCS 서비스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가장 큰 장점은 대재해채권(CAT bond)와 ILS를 통해 한국을 국제 자본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브로커와 투자그룹이 PCS의 한국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PCS가 도입된 이후에 한국시장에서 ILS를 발행하고 싶어 한다. PCS는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 PCS의 손실지수를 트리거로 한 대재해채권이 많이 발행된 바 있다.

PCS는 세계 ILW의 70%에서 트리거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2년간 15개 대재해채권에 트리거로 사용되었으며 발행금액은 5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

